

광주 전통시장 내 이마트 출점 놓고 내홍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남광주시장 점포 등록 추진 일부 상인 "구에 제출된 동의서, 실제 의사와 다르다" 주장 동구 "내부 이견 조율 거쳐 다시 제출하면 절차대로 검토"

이마트가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에 '노브랜드' 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에 제출한 입점동의서를 놓고 시장상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광주시장 모 상인회 소속 일부 상인 13명은 "상인회가 작성한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동의서에 적힌 본인의 입점 찬·반 의견을 확인하겠다"며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

이들 중 7명은 '실제 의사와 다르게 입점동의서가 기록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3월29일 남광주시장 안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출점하겠다고 동구에 점포 개설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동구는 구 조례 상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남광주시장 내에 면적 500㎡ 미만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할 경우 시장 상인회 직인이 찍힌 입점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며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달 12일 이마트는 '시장 내 상인회 2곳 모두 입점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상인 입점동의서를 동구에 제출했다.

이후 상인회 1곳 소속 상인 중 일부가 입점 반대 대책위를 꾸려 해당 상인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입점동의 설문 조사를 벌였다. 설문 결과 전체 54명 중 44명이 응답해 42명(78%)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마트가 제출한 입점동의서에서 해당 상인회의 찬성 비율은 62%였다.

구에 제출된 동의서와 자체 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엇갈리자, 반대 상인들은 동의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달 25일 동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동구는 지난 달 29일 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에 나섰다.

동구는 대책위의 설문 결과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입점동의서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상인회측에 요구했다.

동의서 제출 시한은 후속 절차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는 오는 14일 이전으로 통보했다.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들은 "당사자가 찬성을 하지 않은 동의서가 구청에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노브랜드 입점 관련 행정절차는 무효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동의서에 동봉된 회의록에는 '전체 상인의 과반수 이상 출석·출석 상인의 과반수 동의"

를 얻어 입점을 찬성한다'고 쓰여있고 상인회 공식 직인이 찍혀있는 만큼 행정절차 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부처님 오신날 탐돌이 12일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강원 춘천시 사북면 현지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진행됐다.

전두환씨 형사재판에 39년 전 광주 증언 시민 5명 출석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광주에서 열린다.

재판장이 불출석을 허가함에 따라 전 씨는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39년 전 5월 광주의 참상을 목격했던 시민들이 증인으로 출석, 그날의 실상을 증언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3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시민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1980년 5월 광주의 실상을 목격했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법정에서 울려 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재판의 쟁점인 헬기사격에 관한 증언도 이어진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모 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1980년 5월21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남편이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계엄군 헬기로부터 3차례 (위협)사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직접 목격한 (헬기사격) 상황까지도 (전두환 씨 측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의 변호인은 헬기사격 목격자 진술 국과수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 국방부 특조위 백서, 5·18 당시 국방부가 작성했던 일부 문건 등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앞선 8일 재판장은 전 씨의 변호인이 지난 달 28일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과 관련, 형사소송법 277조를 근거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씨는 앞으로의 형사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선고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이어 "다만 동의서가 일부 상인의 실제 의사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추후 행정절차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조정회의 결과대로 상인회에서 이견을 조정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절차를 거쳐 최종 입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동구는 24일까지 점포 개설 등록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주택서 포탄9발 발견...군·경 조사

12일 오전 10시에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주택 옥상에서 포탄 9발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군 당국과 함께 포탄을 수거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길이 17cm가량의 포탄은 옥상 장독대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총 연습사격용 실탄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대공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수서 멸종위기 돌고래 상괘이 사체 발견

11일 오후 4시55분 여수시 웅천 친수해변공원에서 시민이 돌고래 사체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돌고래는 길이 140cm, 둘레 77cm, 몸무게 50kg의 상괘이로 확인됐다.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해경은 죽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괘이가 해변공원 쪽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보고 사체를 여수시에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보호종인 상괘이가 부상당한 것을 발견하거나 조업 중 그물에 걸렸을 때는 조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상괘이는 최근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 등재돼 보호받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양 백운산 자락 불...인명피해 없어

11일 낮 12시30분께 광양시 옥동면 동곡리 백운산 자락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임야 500㎡가량(추정)이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 작업에는 산림헬기 3대, 소방·진화차 각 4대, 공무원과 소방대원 80여 명이 투입됐다.

산림당국은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 완전 진화 뒤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50대 남성 지인 살해후 도주...숨진채 발견

돈 문제로 갈등하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서울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서울 등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7분께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정모(56)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다.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정씨의 사망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씨가 같은 날 오후 2시47분께 등대문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지인인 한모(54)씨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이다.

세월호 추모시설 낙서 60대 여성 입건

서울 광화문공원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훼손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께 세월호 기억공간 벽에 붉은색 스프레이칠을 한 A(61)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월호 기억살인', '문재인' 등의 문구를 스프레이로 적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기동대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산 공장서 기계에 갇힌 30대 근로자 숨져

부산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사하구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몸이 갇힌 것을 업체 대표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